

몽골 가족기업의 은행 신뢰도에 대한 결정 요인

최영* · 을카그바슈렌 게렐첿세그**

<요 약>

[연구목적] 최근 시중은행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조명하고, 은행 신뢰도의 결정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과 저축 수준을 활용하여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6개 국가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며, 소득과 저축이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방법]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소득수준과 저축 수준이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은 은행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높은 소득일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저축 수준은 은행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 연령, 성별 등의 통제변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관계를 보였다.

[연구의 시사점] 소득과 저축을 늘리는 것이 은행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은행 신뢰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별 은행 신뢰도에 대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은행 신뢰도, 가족기업, 소득수준, 저축 수준, 국가별 비교

논문투고일 : 2024. 6. 3. 1차 수정일 : 2024. 6. 12. 게재확정일 : 2024. 6. 12.

* 가톨릭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세무회계금융학과 강사, 제1저자, email: choiyoung@catholic.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교신저자, email: gerlee902@gmail.com

I. 서 론

최근 시중은행들의 비도덕적 행동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객의 허락 없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다른 은행은 학력 수준에 따라 대출이자를 차등 적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국은행에서는 30여 명 고객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 기한을 삭제하고 숫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은행은 서류 조작을 시인하였으며, 은행 본점에서는 용자 승인을 해주면서 입주 예정일에 맞게 만기를 줄여 재계약을 하라고 하였는데 일선 지점에서 자의로 서류를 수정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또 다른 은행은 개인의 신용 대출이자를 매길 때 대출받는 사람의 학력 수준에 비례하여 차별을 두었다. 은행은 고졸 이하인 사람에게는 13점, 석사와 박사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54점을 주면서 고졸 이하인 사람의 신용 평점이 석·박사 졸업자의 1/4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기관의 신용 평점은 즉시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이자에 영향을 준다. 감사원 공개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1년 개인 신용대출을 거부당한 4만 4,368명 중 1만 4,138명은 학력 수준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기간 내 처리한 15만 1,648명의 신용대출 중에 7만 3,796명은 학력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무려 17억 원의 금리를 추가 납부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 담합 의심에 이어 금융권의 각종 파행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비자들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용도가 높은 기관으로서 이미지 쇄신이 우선적이며 떨어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은행 신뢰도의 결정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축 수준과 소득수준을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은행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몽골 가족기업이며, 은행 신뢰도에 대한 선행연구 등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소득과 저축이 은행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은행 신뢰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전개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변수들의 측정방법, 표본 선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

은행의 융자 심사기준 강화 또는 완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 중 소비자 신뢰는 소비자의 현재 및 살길의 재사 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상황, 구매 조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계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면 현재의 소비를 위해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는 심사기준 정도가 더욱 완화되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최우주(2014)는 실증분석을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기준을 낮추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신흥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가 변화하면 수익을 늘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킨다(최기홍 등, 2017).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자 변화는 담보 종류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융자, 유가증권 대출, 보증 대출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한편, 저축 대출과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자 변화가 담보 종류별 대출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은행 특성 별로 다르다. 셋째, 보증 대출과 신용대출은 이자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은행들은 이자가 변화함에 따라 담보 종류별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보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이자 변화에 따른 담보 가치의 떨어짐에 대비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Bester(1987)는 Stiglitz and Weiss(1981)와 유사한 경제에서의 담보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자율과 담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자율과 담보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의 범위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은행 여신(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의 금리 증가는 역 선택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도산할 가능성이 적은 안전한 투자자들은 이자율을 줄이기 대신 담보량을 늘리고자 하는 건의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담보가 도산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높은 금액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균형 이자만을 사용한 대출보다 스크리닝과 자기선택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강우성(2003)은 이자 자유화 진전과 고객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이 대출행태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적 융자대상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적은 가계대출과 주택 자본금 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한 대출을 받은 사람과 대출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

키기 위해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이 지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출에서의 위험 감소를 위한 은행의 계획이 대출행태와 대출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2003년~2012년까지 12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사용한 계량경제분석을 통해 가계부채비율의 결정 요인을 파악해 보았다(박대근과 최우주, 2015). 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들이 규칙적이지 않았다. 지나친 움직임은 보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경우 주택가격 증가율과 대출 심사기준이 가계부채비율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소비자 신뢰도, 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계부채비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호(2018)는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이 향후 주택 구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자금인 보증금은 주택 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똑같은 보증금이더라도 전세 자본금 대출 차주는 주택 구입 확률이 더 낮다. 둘째, 주택을 매매할 때 전세 자본금 대출 차주는 동일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서 더 낮은 구입률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구입률을 낮추며, 전세 자본금 대출의 확정이 주택 구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온라인 P2P 대출(Online Peer-to-Peer Lending)이란 대출자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P2P 플랫폼 회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중개 서비스다(배재권 등, 2018). 국내외적으로 P2P 대출 시장의 성장과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P2P 대출의 안정성 측면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P2P 대출 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P2P 기업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P2P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P2P 대출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는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의 구축 및 유지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확실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정의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churr and Ozanne, 1985). 신뢰는 하나의 관계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의 최적 이해 하에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신념을 포함한다. Moorman et al.(1993)의 연구에서 신뢰는 2가지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는 동반자의 전문지식, 의도성 및 신뢰성 등에 의해 야기되어 나타나는 거래 동반자에 대한 신념. 확신이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측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포함하고 동반자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는 행동적 의도이다(배병렬과 김종호, 2000). Lane and Bachmann(1996)은 관계 파트너 간의 신뢰는 과거의 체험과 미래의 예상을 연결함으로써 파트너 간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높은 불확실성에서도 위험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순규(2000)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신뢰의 개념을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이 언어나 문장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 본인이 믿어도 될 것이라는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ncy)”라고 했다(Rotter, 1980). 안나미(2011)는 신뢰를 “인지적 이념이나 감정적 기대, 의도의 차원으로, 신뢰도 의도 또는 행위적 상태 등 감정, 의도, 신념, 행동이라는 개념적 차원으로 분할되어 정의된다”고 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직업, 직장인이 재직 중인 기업규모, 연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및 미가입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유 계약 근로자 등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1금융권 및 2금융권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용 여신 내부등급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승인률과 한도, 저렴한 이자율이 제공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허용 가능한 부채비율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척도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한 신용등급과 채무구조 하에서 높은 승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가설1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저축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삶의 여유가 없다면 즉, 돈이 부족하데 물가가 높으면 저축 수준이 높을 수가 없다. 다른 곳에 충분히 써도 돈이 남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2 :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은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식(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행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β_1 이 양(+)의 값을 가질 것이며, β_2 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이며, 독립변수는 소득수준(INCOME)과 저축 수준(SAVING)이다. 또한, 학력(UNIVERSITY), 연령(AGE), 성별(GENDER), 인지적인 직업(COGNITIVE_JOB), 창의적인 직업(CREATIVE_JOB), 정규직 여부(FULLTIME_JOB), 결혼 여부(MARRIED) 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begin{aligned}
 BANK_RELIABILITY_{i,t} = & \alpha_1 + \beta_1 INCOME_{i,t} + \beta_2 SAVING_{i,t} + \beta_3 UNIVERSITY_{i,t} \\
 & + \beta_4 AGE_{i,t} + \beta_5 GENDER_{i,t} + \beta_6 COGNITIVE_JOB_{i,t} \\
 & + \beta_7 CREATIVE_JOB_{i,t} + \beta_8 FULLTIME_JOB_{i,t} \\
 & + \beta_9 MARRIED_{i,t} + \epsilon_{i,t}
 \end{aligned}$$

식(1)

여기서,

<i>BANK_RELIABILITY</i>	은행 신뢰도, '완전 신뢰한다'- 4, '약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i>INCOME</i>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으로 1~10점의 점수 부여
<i>SAVING</i>	저축 수준이 높으면 1, 낮으면 0
<i>UNIVERSITY</i>	응답자의 학력, 대학졸업 이상이면 1, 대학졸업 미만이면 0
<i>AGE</i>	응답자의 연령
<i>GENDER</i>	응답자의 성별, 여자이면 1, 남자이면 0
<i>COGNITIVE_JOB</i>	인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1~10의 척도로 측정
<i>CREATIVE_JOB</i>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1~10의 척도로 측정
<i>FULLTIME_JOB</i>	정규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MARRIED</i>	기혼이면 1, 미혼이면 0
ε	오차항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은행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WORLD VALUE SURVEY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은행 신뢰도를 측정할 때 “xx님이 종사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종사했던 직종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답변은 육체노동과 관련된 직종, 지적 활동과 관련된 직종이었다. 또한, “이번에는 귀댁의 수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범주에 속합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을 1~10인 점수를 매겨 측정하였다. 최저소득은 1점, 최고소득은 10점으로 정하였다. “지난해 xx님의 경제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저축한다”, “저축해 놓은 돈을 썼다”, “수입만으로 그럭저럭 살았다”, “저축해 놓은 돈을 쓰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3. 표본구성

본 연구의 표본은 6개 국가(중국, 일본, 홍콩, 대만, 한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WVS(World Values Survey)에서 24년 주기로 실행하는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총 7,15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 참여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만은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3,173명이 참여하였으며, 2006년에 참여한 사람이 좀 더 많았다. 홍콩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총 2,206명, 일본은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6,303명, 한국은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총 6,076명,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199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총 7,991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국가별 표본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별 표본분포

변수		표본 수
국가	중국	7,158
	대만	3,173
	홍콩	2,206
	일본	6,303
	한국	6,076
	러시아	7,991
성별	여자	4,700
	남자	5,113
직업 특성	정규직	128
	비정규직	9,615
결혼 여부	기혼	40
	미혼	9,773

IV.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의 평균값은 2.274로 중위수인 2보다 크게 나타나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소득수준(INCOME)의 평균값은 4.463으로 중위수인 5보다 작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저축 수준(SAVING)의 평균값은 0.052, 표준편차는 0.223이다. 학력(UNIVERSITY)의 평균값은 0.026으로 전체 표본의 약 2.6%가 대학졸업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연령(AGE)의 평균값은 45.77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평균 나이는 45.77세이다. 성별(GENDER)의 평균값은 0.479로 남녀 비례는 거의 1:1인 수준이며, 인지적인 직업(COGNITIVE_JOB)의 평균값은 4.805로 중위수 5보다 작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직업(CREATIVE_JOB)는 평균 3.921, 표준편차 2.781로 보였다. 정규직 여부(FULLTIME_JOB)의 평균값은 0.013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결혼 여부(MARRIED)의 평균값은 0.434로 전체 표본의 약 43.4%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N=9,813)

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위수	Q3	최대값
<i>BANK_RELIABILITY</i>	2.274	0.778	1	2	2	3	4
<i>INCOME</i>	4.463	2.054	1	3	5	6	10
<i>SAVING</i>	0.052	0.223	0	0	0	0	1
<i>UNIVERSITY</i>	0.026	0.160	0	0	0	0	1
<i>AGE</i>	45.775	16.351	18	32	45	59	91
<i>GENDER</i>	0.479	0.499	0	0	0	1	1
<i>COGNITIVE_JOB</i>	4.806	3.107	1	1	5	8	10
<i>CREATIVE_JOB</i>	3.921	2.781	1	1	3	6	10
<i>FULLTIME_JOB</i>	0.013	0.114	0	0	0	0	1
<i>MARRIED</i>	0.434	0.563	0	0	0	1	1

주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i>BANK_RELIABILITY</i>	은행 신뢰도, '완전 신뢰한다'- 4, '약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i>INCOME</i>	응답자의 평균 소득수준으로 1~10점의 점수 부여
<i>SAVING</i>	저축 수준이 높으면 1, 낮으면 0
<i>UNIVERSITY</i>	응답자의 학력, 대학졸업 이상이면 1, 대학졸업 미만이면 0
<i>AGE</i>	응답자의 연령
<i>GENDER</i>	응답자의 성별, 여자이면 1, 남자이면 0
<i>COGNITIVE_JOB</i>	인지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1~10의 척도로 측정
<i>CREATIVE_JOB</i>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1~10의 척도로 측정
<i>FULLTIME_JOB</i>	정규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MARRIED</i>	기혼이면 1, 미혼이면 0

<표 3>은 국가별 은행 신뢰도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 1995년, 2001년, 2007년에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이 1이며, 중위수 1과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평균값은 1,864로 중위수 2보다 작게 나타나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94년, 2006년의 은행 신뢰도 평균값은 1이며, 2012년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은 2,044로 중위수 2보다 크게 나타나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콩에서는 2005년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이 1이며, 중위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3년에는 평균값이 2,058로 중위수 2보다 큰 수치이다. 일본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은행 신뢰도는 모두 1이며, 2010년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이 2,189로 나타나 은행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1990년, 1996년, 2001년, 2005년 은행 신뢰도 평균값들이 모두 1이며, 2010년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중위수)은 2.141(2)로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는 1990년, 1995년, 2006년 은행 신뢰도의 평균값이 모두 1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2011년 평균값은 2.664로 중위수 3보다 작게 나타나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표 3>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의 국가-연도별 기술통계량

country	year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Q1	중위수	Q3	최대값
중국	1990	995	1	0	1	1	1	1	1
	1995	1,467	1	0	1	1	1	1	1
	2001	909	1	0	1	1	1	1	1
	2007	1,657	1	0	1	1	1	1	1
	2012	2,130	1.864	0.648	1	1	2	2	4
대만	1994	765	1	0	1	1	1	1	1
	2006	1,223	1	0	1	1	1	1	1
	2012	1,185	2.044	0.606	1	2	2	2	4
홍콩	2005	1,211	1	0	1	1	1	1	1
	2013	995	2.058	0.744	1	2	2	3	4
일본	1990	848	1	0	1	1	1	1	1
	1995	953	1	0	1	1	1	1	1
	2000	1,248	1	0	1	1	1	1	1
	2005	1,030	1	0	1	1	1	1	1
	2010	2,224	2.189	0.741	1	2	2	3	4
한국	1990	1,236	1	0	1	1	1	1	1
	1996	1,246	1	0	1	1	1	1	1
	2001	1,198	1	0	1	1	1	1	1
	2005	1,199	1	0	1	1	1	1	1
	2010	1,197	2.141	0.744	1	2	2	3	4
러시아	1990	1,744	1	0	1	1	1	1	1
	1995	1,956	1	0	1	1	1	1	1
	2006	1,970	1	0	1	1	1	1	1
	2011	2,321	2.664	0.939	1	2	3	3	4

2.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는 소득수준(INCOME)과 1% 수준에서 유의한 -0.092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는 저축 수준(SAVING)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은행 신뢰도(BANK_RELIABILITY)는 학력(UNIVERSITY)과 1% 수준에서 유의한 -0.056의 상관관계를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1호

가진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연령(AGE), 성별(GENDER), 인지적인 직업(COGNITIVE_JOB), 창의적인 직업(CREATIVE_JOB), 정규직 여부(FULLTIME_JOB)와 결혼 여부(MARRIED)와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4> 주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

	(1)	(2)	(3)	(4)	(5)
(1) <i>BANK_RELIABILITY</i>	1				
(2) <i>INCOME</i>	-0.092***	1			
(3) <i>SAVING</i>	0.033***	-0.003	1		
(4) <i>UNIVERSITY</i>	-0.056***	-0.064***	0.038***	1	
(5) <i>AGE</i>	0.022**	-0.193***	-0.021**	0.124***	1
(6) <i>GENDER</i>	0.044***	0.033***	0.009	-0.065***	-0.035***
(7) <i>COGNITIVE_JOB</i>	0.022**	0.279***	-0.087***	-0.130***	-0.111***
(8) <i>CREATIVE_JOB</i>	0.037***	0.214***	-0.063***	-0.076***	-0.064***
(9) <i>FULLTIME_JOB</i>	0.028***	-0.035***	0.057***	0.054***	0.041***
(10) <i>MARRIED</i>	0.011	0.004	0.014	0.010	-0.005
	(6)	(7)	(8)	(9)	(10)
(6) <i>GENDER</i>	1				
(7) <i>COGNITIVE_JOB</i>	0.019**	1			
(8) <i>CREATIVE_JOB</i>	0.076***	0.535***	1		
(9) <i>FULLTIME_JOB</i>	0.011	-0.036***	0.016	1	
(10) <i>MARRIED</i>	0.004	0.015	0.024**	0.035***	1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3. 회귀분석 결과

<표 5>는 소득수준과 저축 수준이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모형을 국가 더미변수 포함, 국가 더미변수 미포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INCOME)은 국가 더미변수를 포함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0.042($p<0.001$)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저축 수준(SAVING)은 국가 더미변수를 포함한 경우, 미포함한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가설 2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첫째, 각 국가의 문화 차이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둘째,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한 저축을 장·단기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일수록, 그리고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닐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로 중국은 1.204($p<0.001$)의 계수를 나타냈으며, 홍콩은 1.023($p<0.001$)의 계수, 대만은 0.948($p<0.001$)의 계수, 일본은 0.637($p<0.001$)의 계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0.889($p<0.001$)의 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Parameter	국가 더미변수 포함		국가 더미변수 미포함	
	회귀계수	Chi-Square	회귀계수	Chi-Square
Intercept	-2.026***	1224.61	-1.196***	529.29
Intercept2	1.734***	7192.63	1.610***	7301.58
Intercept3	2.837***	10699.90	2.590***	11216.60
INCOME	0.042***	47.43	0.057***	92.60
SAVING	-0.077	1.58	-0.231***	14.82
UNIVERSITY	0.168**	4.28	0.492***	38.67
AGE	0.0003	0.21	-0.001*	3.38
GENDER	-0.113***	23.36	-0.074***	10.25
COGNITIVE_JOB	-0.002	0.24	-0.010**	5.28
CREATIVE_JOB	-0.016***	9.56	-0.016***	10.41
FULLTIME_JOB	-0.065	0.34	-0.220**	4.08
MARRIED	0.110	0.35	-0.109	0.35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1호

CHINA	1.204***	1034.05	
HONGKONG	1.023***	551.90	
TAIWAN	0.948***	520.29	
JAPAN	0.637***	315.04	
KOREA	0.889***	480.72	
RUSSIA	포함		포함
Log Likelihood	-9598.9		-10258.3
Observations	9,103		9,103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6>의 중국의 경우에는 은행 신뢰도 (BANK_RELIABILITY)는 소득수준(INCOME)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0.044(p<0.004)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인들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저축 수준(SAVING)과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의 -0.029로 나타났으며,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6> 중국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109***	82.47
Intercept2	1.992***	1836.16
Intercept3	3.085***	1293.85
INCOME	0.044***	8.15
SAVING	-0.029	0.05
UNIVERSITY	0.132	1.36
AGE	0.006***	10.79
GENDER	-0.086	2.42
COGNITIVE_JOB	-0.023*	3.93
CREATIVE_JOB	-0.026*	4.11
FULLTIME_JOB	0.0001***	0.0001
MARRIED	0.0001***	0.0001
Log Likelihood	-1583.82	
Observations	1,782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표 7>은 일본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 소득수준(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0.001($p < 0.912$)로 나타났으며, 저축 수준(SAVING)도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를 보여 이는 일본에서는 재산이 있거나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표 7> 일본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777***	190.73
Intercept2	1.933***	1442.65
Intercept3	3.266***	2234.68
INCOME	0.001	0.01
SAVING	0.068	0.32
UNIVERSITY	0.130	0.22
AGE	0.005***	9.26
GENDER	-0.089	2.69
COGNITIVE_JOB	0.016	2.54
CREATIVE_JOB	-0.017	2.60
FULLTIME_JOB	-0.162	1.37
MARRIED	0.177	0.24
Log Likelihood	-1731.58	
Observations	1,772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대만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 8>에서 소득수준(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계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저축 수준(SAVING)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은행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8> 대만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289***	62.28
Intercept2	2.113***	1223.04
Intercept3	3.407***	1017.34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1호

<i>INCOME</i>	0.051**	5.47
<i>SAVING</i>	0.099	0.15
<i>UNIVERSITY</i>	0.113	0.20
<i>AGE</i>	-0.004*	3.14
<i>GENDER</i>	-0.002	0.00
<i>COGNITIVE_JOB</i>	0.002	0.01
<i>CREATIVE_JOB</i>	-0.004	0.05
<i>FULLTIME_JOB</i>	0.217	0.03
<i>MARRIED</i>	-0.850	1.14
Log Likelihood	-961.18	
Observations	1,121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표 9> 홍콩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0.977***	33.88
Intercept2	1.459***	763.07
Intercept3	2.711***	882.59
<i>INCOME</i>	0.042**	3.99
<i>SAVING</i>	-0.084	0.01
<i>UNIVERSITY</i>	-0.172**	0.52
<i>AGE</i>	0.006***	6.7
<i>GENDER</i>	-0.122*	2.94
<i>COGNITIVE_JOB</i>	-0.015	0.97
<i>CREATIVE_JOB</i>	-0.028*	2.91
<i>FULLTIME_JOB</i>	-0.466	0.72
<i>MARRIED</i>	-1.286	1.44
Log Likelihood	-1064.27	
Observations	971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표 9>는 홍콩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소득수준(*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0.042($p < 0.046$)의 계수로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

준이 은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저축 수준(SAVING)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저축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10>의 한국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수준(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서 0.0031의 계수를 나타냈으며, 반면에 저축 수준(SAVING)은 -0.087의 계수를 보여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 수준이 낮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한국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104***	47.47
Intercept2	1.529***	957.37
Intercept3	2.752***	1254.02
INCOME	0.031	2.62
SAVING	-0.087	0.04
UNIVERSITY	0.116	0.09
AGE	0.007***	8.88
GENDER	-0.223***	12.01
COGNITIVE_JOB	-0.012	0.7
CREATIVE_JOB	-0.024	2.59
FULLTIME_JOB	1.104	2.12
MARRIED	0.635	2.36
Log Likelihood	-1301.75	
Observations	1,192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마지막으로, <표 11>은 러시아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수준(INCOME)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0.116(p<0.001)의 회귀계수를 보인 반면 저축 수준(SAVING)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한국, 중국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회귀분석 결과로 봤을 때 소득수준과 은행 신뢰도의 관련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였으나 저축 수준이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러시아 표본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Intercept	-1.69***	222.58
Intercept2	1.401***	993.26
Intercept3	2.403***	2307.14
INCOME	0.116***	67.75
SAVING	-0.243**	6.21
UNIVERSITY	0.173	0.28
AGE	-0.007***	23.25
GENDER	-0.163***	12.19
COGNITIVE_JOB	-0.0003	0.00
CREATIVE_JOB	-0.01	1.02
FULLTIME_JOB	-0.034	0.02
MARRIED	-0.146	0.26
Log Likelihood	-2735.13	
Observations	2265	

주1) ***, **, *는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주1)과 같음.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득수준, 저축 수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국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은 국가 더미변수 포함, 또는 미포함 했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신뢰도의 경우 직업, 직장인이 재직 중인 기업규모, 연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및 미가입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유 계약 근로자 등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다를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1금융권 및 2금융권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용 여신 내부 등급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승인률과 한도, 저렴한 이자율이 제공될 수 있다. 소득의 경우 허용 가능한 부채비율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척도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동일한 신용등급과 채무구조 하에서 높은 승인 가능성이 있

을 수 있다. 한편, 저축 수준은 국가 더미변수를 미포함했을 때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저축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이다. 이는 은행 신뢰도에 있어 저축 수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통제변수인 학력, 연령, 성별, 인지적인 직업, 창의적인 직업, 정규직 여부, 결혼 여부 등은 각 국가의 문화가 다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국가별 은행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객이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저축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였다. 반면, 은행 신뢰도에 대한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별 은행 신뢰도에 대한 의식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면 세계 각국에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강우성. 2003. “우리나라 일반 은행 대출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대근·최우주. 2015.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주택가격과 대출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 75-98.
- 배병렬·김중호. 2000. “관계 결속 및 신뢰가 서비스 제품의 애호도 및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경영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 23-38.
- 배재권·이승연·서희진. 2018.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온라인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3권 제3호 : 207-224.
- 안나미.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이미지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최기홍·류수열·윤성민. 2017. “금리가 은행대출의 담보유형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 제15권 제1호 : 79-109.
- 최성호. 2018.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구매 확률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제26권 제2호 : 87-103.
- 최순규. 2000. “경영전략 연구에 있어서 신뢰 문제에 대한 고찰”. 「복악경영연구」, 제6권 : 529-546.
- 최우주. 2014. “은행의 대출태도 및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Bester, H. (1987). The role of collateral in credit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31(4) : 887-899.
- Lane, C., & Bachmann, R. (1996). The social constitution of trust: supplier relations in Britain and Germany. *Organization studies*, 17(3) : 365-395.
- Moorman, C., Deshpande, R., & Zaltman, G. (1993). Factors affecting trust in market research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7(1) : 81-101.
- Rotter, J. B. (1980). Interpersonal trust, trustworthiness, and gullibility. *American psychologist*, 35(1) : 1.
- Schurr, P. H., & Ozanne, J. L. (1985). Influences on exchange processes: Buyers' preconceptions of a seller's trustworthiness and bargaining toughnes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4) : 939-953.
- Stiglitz, J. E., & Weiss, A.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 393-410.

Determinants of Banking Trust in Mongolian Family Businesses

Cui, Ying* · Lkhagvasuren, Gereltsetseg**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recent social controversies regarding unethical behaviours of commercial banks and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banking trust. It seeks to analyse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s and savings levels on banking trust. Empirical research is conducted on family businesses in six countries to examine the impact of income and savings on banking trust.

[Design/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national-level data.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were employ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income levels and savings levels on banking trust.

[Finding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come levels significantly affect banking trust, with higher income associated with greater trust in banks. However, savings levels were found to have minimal impact on banking trust. Moreover, control variables such as education, age, and gender exhibited diverse relationships across different countries.

[Research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ncreasing income and savings can enhance banking trust. This emphasises the need for surveys that consider various aspects of banking trust. Furthermore, utilising statistical data on banking trust across different countries can provide insights into formulating policy measures applicable worldwide.

<Key Words> Banking trust, Family business, Income level, Savings level, Country comparison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Finance, School of Global Busines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First Author, email: choiyoung@catholic.ac.kr.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email: gerlee902@gmail.com.